

(2025년도) 교토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정보

2025년 12월 24일, 교토부 가메오카시의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가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등에 대한 교토부가축전염병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조치를 개시하였습니다.

교토부 주민 여러분께

닭고기, 달걀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개체나 동일 농장의 모든 닭에 대해 살처분 등 가축 방역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본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 등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 식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가금류의 고기나 달걀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